

종합·해설

총선 D-30...광주·전남 주요 선거구 판세

‘민주 없는’ 광주 동구 무소속 혈투 예고

4·11총선을 한 달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선거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지역구의원 탈락이 전혀 없는 수도권과 달리 호남에서만 6명의 현역 지역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전략지역 선정과 유력 후보의 경선 배제 등에 따라 반발이 확산하고 있어 민주당 일색일 것이라는 예초 관측과 달리 상당수의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의 들끓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동구는 민주당이 일찌감치 무공천지역으로 선정, 무소속 후보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먼저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양형일 전 국회의원을 조만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인 박주선 의원에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어서 전·현직 의원과 정치신인의 대결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구다.

서갑은 민주당이 후보 선정 방법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찌감치 한 나라당을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선거 운동을 해온 정용화 후보, 공천 배제 후 1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영택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들면 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권연대 지역인 서울에는 통합진보당을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선거 운동을 해온 정용화 후보, 공천 배제 후 1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조영택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들면 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김재균 의원이 탈락한 북을도 복잡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조지력을 내세운 이상동 전 광주시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나주·화순이 화제의 선거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역인 최인기 의원이 공천 배제되자 당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 민주당 후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참여자인 배기운 전 의원과 박선원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중 누가 당 후보가 되더라도 강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최 의원과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의원이 인물론을 내세우며 고위 관료 출신의 조영택(광주 서울)·강봉균(전북 군산) 의원과 무소속 연대를 맺을 경우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어 민주당 후보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순천·곡성의 경우 아권연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

서울 아권연대 오병윤-새누리당 이정현 대결

나주·화순, 무소속 최인기-민주당 후보 다름도

진보당 김성동 의원 간 본선 대결이 불만하게 됐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세 후보 중에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돼 노 전 시장 대 김 의원의 혈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시장의 조직력이 우수하나 김 의원도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신안에는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당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무안 출신인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서 전 군수가 후보가 될 경우 신안 출신의 한 전 대표와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안에 상당한 조직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서 전 군수의 경우 신안에서는 다소 취약함을 보여 지역간 대결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선거 기원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지난 9일 여수 종포 해양공원 등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에서 '클린(Clean) 3·9 데이(Day)'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수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정책선거 기원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부>

민주 '현역' 김유정·김진애 탈락

2차 경선서...오늘 3차 경선 결과 발표

민주당은 10일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합산, 전국 17개 지역의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47.45%의 득표율로 17.64%를 기록한 김유정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마포구에서는 노용래 전 의원이 65.79%를 기록, 37.64%를 얻은 김진애 의원을 크게 이겼다. 용산구에서

는 KBS 정치부장을 지낸 조순용(51.3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인환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10일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합산, 전국 17개 지역의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47.45%의 득표율로 17.64%를 기록한 김유정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마포구에서는 노용래 전 의원이 65.79%를 기록, 37.64%를 얻은 김진애 의원을 크게 이겼다. 용산구에서

의원이 조재현(26.30%) 전 경기도당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을 이겼다. 앞서 9일 민주당은 서울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5개 선거구에 대한 11명의 7차 경선후보자를 발표했다. 서대문구에서는 김영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이근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양천구에서는 김한정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이용선 전 민주당 공동대표가 공천권을 다툰다. 경기 수원 읍에서 신장용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붙는다.

경기 안양 동안구 갑에서 이석현(65.32%) 의원이 민병덕(34.68%)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 범법지원당장을, 용인갑에서는 우재창(73.70%)

의원 이 조재현(26.30%) 전 경기도당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을 이겼다. 앞서 9일 민주당은 서울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5개 선거구에 대한 11명의 7차 경선후보자를 발표했다. 서대문구에서는 김영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과 이근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양천구에서는 김한정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이용선 전 민주당 공동대표가 공천권을 다툰다. 경기 수원 읍에서 신장용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붙는다.

경기 안양 동안구 갑에서 이석현(65.32%) 의원이 민병덕(34.68%)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 범법지원당장을, 용인갑에서는 우재창(73.70%)

새누리 공천자 15명 발표

새누리당은 11일 대구 달서갑 홍지만 전 SBS 뉴스 앵커, 달서을에 윤재옥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인천 부평구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부1비서관, 경기 파주갑에 정성근 전 SBS 나이

트라인 뉴스 앵커를 공천하는 등 모두 15명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이 확정 발표한 5차 공천자 명단에는 대구지역 김삼훈(서구), 이종진(달성군), 경기 유승우(이천),

강원 김기선(원주갑), 충북 윤경식(청주흥덕갑), 충남 김태홍(보령·서천), 유상곤(서산·태안), 경남 강기운(창원을(성산구), 김재경(진주을), 진성진(거제), 윤영석(양산)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공천자는 150명이며 경선이 예정된 지역은 37곳이다.

여수 광역·기초의원 보선 후보 1차 경선 시작

민주당은 4·11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여수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 8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한 1차 경선을 11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5일과 16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11일 밝혔다. 이날 심사결과 광역의원의 경우 제4선거구 김상배·김상면·김신·김장현·주갑식 후보는 '경선후보 4인 이내' 규칙에 따라 11일 1차 여론조사를 거친 후 다득표자 2명을 최종 경선에 올릴 예정이다.

선 없이 오는 15일과 16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제6선거구 남태홍 후보는 단수후보로 결정됐다. 기초의원 후보 경선은 ▲나 선거구(김홍식·노순기) ▲라 선거구(김현태·김충길·이상우) ▲마 선거구(박규구·주길영·주찬중) ▲사 선거구(전홍식·정행균·최무경) 후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과 16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한광옥 등 舊 민주계 신당 창당 추진

민주당은 오는 13~14일 양일간 비례대표후보신청을 접수받는 뒤 서류 심사, 후보 면접 등 본격적인 공천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구성=민주당은 안병욱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10명 등 외부인사 비중을 크게 높였다. 다만, 내부인사는 당내 세력별 관리를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소문상 중부대 객원교수는 시민통합당 출신의 문성기 최고위원이 지역구 공천위 구성 때

6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쳤으며 공식 창당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다. 정통 민주당은 한광옥 전 의원을 비롯해 김덕규, 이훈평, 조재환, 국창근 전 의원과 녹색통일당의 장기표 상임대표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민주당 측은 민주당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권의 공천 탈락자와 장외 인사들에 대해서도 '민주적, 개혁적 성향'이 있으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 민주당의 출범은 4·11총선 구도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일부 인사의 경우, 선전 가능성도 있는데다 서울과 수도권 등 박빙의 승부처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고한 지역적 기반이 없고 스타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나들기의 태풍'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a large green and blue graphic with the text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and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Below this, there are images of 'ENG 방수' paint buckets and a list of services. On the right, there is a detailed advertisement fo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Nongseong-dong Leaders High Housing Exhibition Hall), including a table of floor area and height, and contact information.